

호랑이·독수리 벼랑끝 승부

프로야구 전망대

KIA, 한화·LG와 홈 6연전
돌아온 이범호 '虎打' 관심
윤석민·박찬호 2차 빅매치

2012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21일 현재)

Table with 7 columns: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Rows include SK, 넥센, LG, 롯데, 두산, 삼성, KIA, 한화.

위기의 두 감독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롯데전 12연패를 당하고 돌아온 KIA 타 이거즈가 홈 6연전을 앞두고 있다.

주중 3연전은 KIA 선동열 감독과 한화 한대화 감독, 두 위기의 감독이 벌이는 필사적인 한판 승부다.

두 팀은 시즌 초반부터 나란히 7·8위를 지키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기 마지막해를 보내고 있는 한대화 감독은 해외파 박찬호·김태균과 FA 송신영의 영입으로 전력보강을 하고도 최하위에 머물며, 벼랑끝에 서있다.

KIA의 새 사령탑 선동열 감독에게도 이번 주는 지도력 테스트를 받는 어려운 시간이다.

라미레스·양현종 두 좌완에 이어 타선의 핵심 이범호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마무리 한기주까지 22일 1군에 복귀한다.

두 팀의 야구는 '자멸 야구'로 표현된다. 흔들리는 마운드와 구멍 뚫린 내야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화는 팀 타율이 0.280에 이르지만 방어율도 5.08로 가장 높다. KIA도 감독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4.67의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7위다.



지난 주말 롯데와의 경기에서 이를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린 KIA 이범호가 친정 한화를 상대로 팀 연패 탈출을 겨냥한다.

며 이종고를 겪고 있다.

내야도 불안하다. 지난해 2루수·유격수 골든 글러브 수상자인 KIA 안치홍과 한화 이대수의 실수 연발과 함께 내야진의 발걸음이 무겁다.

살얼음 승부에서 KIA 이범호와 한화 장성호가 친정팀을 상대로 방망이를 겨누고 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신음하던 이범호는 지난 17일 삼성을 상대로 시즌 첫 경기를 치렀다. 두 번째 홈전이었던 18일 롯데전에서 첫 안타를 때려낸 이범호는 19·20일에는 연달

아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특급 선수로서의 위력을 발휘했다.

장성호도 지난달 24일 윤석민을 상대로 투런포를 터트리는 등 6타수 3안타 3타점의 맹타로 팀의 4연패 탈출을 이끌며 'KIA 킬러'로서의 명성을 과시했다.

22일 마운드에서는 KIA 서재응과 한화 양훈이 팀 연패 탈출의 임무를 띠고 대결을 벌인다. 23일에는 심겁게 끝나버렸던 KIA 윤석민과 한화 박찬호의 빅 매치가 다시 펼쳐질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체육 특기자 금품 스카우트 않겠다"

전국 대학 총장들 선언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 총장들이 체육 특기자 스카우트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뒷돈 제공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51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체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스카우트" 중단을 포함하는 대체스포츠 정

상화·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학 간의 체육특기자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학부모 등에게 금품이 건네진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를 위해 스카우트에 관여하는 각 대학 운동부 체육위원장과 감독 및 코치진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 스카우트 근절 세약제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야구·축구 '꿈의 매치'

'국보' 선동열 vs '대마신' 사사키 선발 맞대결

한·일 레전드 매치
7월 20일 잠실구장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국보급 투수' 선동열과 사사키 카즈히로가 꿈의 매치를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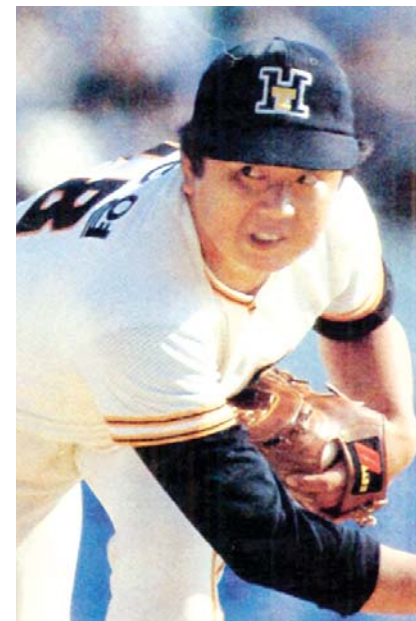
원로 야구인들의 모임인 한국 일구회와 일본 명구회는 21일 서울 도곡동 야구 회관에서 '한·일프로야구 레전드 매치' 조인식을 갖고 7월20일 오후 6시 잠실구장에서 친선경기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한국 대표로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장이 참석했고 일본 대표로는 재일교포 장훈(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씨가 자리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1991·1995·1999년 세 차례에 걸쳐 슈퍼게임을 개최했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올림픽 등에서 수 차례 격돌했지만 월드 스타들이 맞붙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명구회는 투수의 경우 통산 200승, 타자는 2000안타 이상을 기록한 선수만 가입하는 톱스타 클럽이다.

통산 525홈런을 기록한 강타자 기요하라 가즈히로, 20세기 마지막 퍼펙트게임



선동열



사사키

투수인 마키하라 히로미, 1990년대 세이부 라이온스의 주전 포수 출신으로 올 시즌 두산 베어스 수석코치를 맡은 이토 츠토무 등이 참가한다.

한국 OB팀 출신 선수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경기 선발로 선동열 KIA 감독과 사사키 카즈히로가 예고됐다. 일본과 미국프로야구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사사키 가즈히로는 대마신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수호신에서 딴 애칭 '대마신'으로 이름을 날린 날린 전설의 투수다.

한편 '레전드 매치'에 나서는 선수들은 어린이 야구교실을 열고 경기 후 유니폼 및 경기용품을 자선경매에 부쳐 유소년 팀에 기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월드컵 4강 멤버 vs K리그 올스타 신나는 한판

K리그 활성화위해
7월 5일 서울에서

2002 월드컵 10주년을 기념해 월드컵 4강 멤버와 2012 K리그 올스타 멤버의 맞대결이 벌어진다.

K리그 홍보대사인 안정환 명예 홍보팀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2 월드컵 대표팀 초청 K리그 올스타전"을 제안했다.

안정환은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국민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K리그에 헌신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K리그를 위해 2002년 멤버가 다시 뭉쳐 축제의 장을 만들고 그 열기를 K리그로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이번 올스타전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2012 K리그 올스타전은 2002 월드컵 멤버로 구성된 'TEAM 2002'와 2012 K리그 올스타로 꾸러지는 'TEAM 2012'의 대결로 오는 7월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TEAM 2012'의 감독과 베스트 11은 팬투표로 결정되며, TEAM 2012 감독과 후보선정위원회가 나머지 엔트리를 선정한다. 팬투표는 올 시즌 선수 평점, 맨 오브 더 매치 선정, 위클리베스트 선정, 개인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선정된 33명의 후



K리그 안정환 명예 홍보팀장은 2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2 월드컵 10주년을 기념해 당시 멤버와 K리그 올스타가 함께하는 '2002 월드컵 대표팀 초청 K리그 올스타전(가칭)'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TEAM 2012 감독은 K리그 현역 감독 가운데 2002년 월드컵 멤버(황선홍·최용수·정재성·최진한·박황서·유상철)를 제외한 10명의 감독 중 팬투표로 뽑는다.

TEAM 2002 명단은 6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프로축구 연맹은 안정환 명예 홍보팀장과 함께 'K리그를 알리라' 프로젝트를 함께 할 온라인 홍보팀원을 모집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개인 계정 보유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K리그 페이스북 (www.facebook.com/withK-

LEAGUE)과 K리그 트위터(www.twitter.com/kleague)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팀원은 다양한 K리그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안정환 홍보팀장과 함께 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된다.

참여를 원하는 축구팬은 K리그 트위터와 K리그 페이스북에서 발행되는 안정환 홍보팀장의 미션 초대장을 RT하거나 공유한 뒤 자신의 이름, 나이, K리그 홍보 아이디어(활동 계획)를 담아 K리그 SNS로 전송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hinyang Park Hotel. Features a woman in a white dress, text: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25,000 부터~ (세금 별도)',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7월~8월', '예약문의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